뒤바뀐 소견, 단견과 상견

〈斷見〉 〈常見〉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㉗ 두 가지 멸제(滅諦)

"부사의(不思議)한 것은 고가 멸한 진실한 법(滅諦)이니, 일체중생들이 마음으로 반연할 바를 뛰어넘었으며,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마치 날 때부터의 소경(生盲)은 모든 빛깔을 보지 못하며,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고가 멸한 진실한 법(苦滅諦)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범부들이 마음으로 반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二乘)의 지혜로 헤아릴 경계도 아닙니다.

범부의 마음은 뒤바뀐 두 가지 소견이요,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는 범부에 비해 청정하지만 궁극의 멸제(滅諦)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변견(邊見)이란 것은, 범부들이 5수음(受陰)에 대하여 나라는 허망한 소견으로 고집하여 두 가지 소견을 내는 것을 말함이니, 곧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이 그것입니다. 모든 변천하는 것(諸行)이 항상함이 없다고만 보는 것은 바로 단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며,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으로 이와 같은 소견을 내는 것입니다."

열반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는 것처럼 멸제(滅諦)에도 미완의 멸(滅)과 완전한 멸(滅)이 있다고 〈승만경〉에서는 말한다. 고(苦)가 완전히 없어진 진실한 고멸제(苦滅諦)는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했다. 눈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범부들은 마음으로 멸제를 반연하기가 어렵다고 비유를 들어 말했다. 반연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여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른바 능소(能所)의 관계로 주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인식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유무(有無)를 판단하고 시비(是非)의 장(場)을 생각 속에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곧잘 이념적 성향에 빠져 변견(邊見)에 떨어져, 자기 생각이 우월하다는 자만에 빠진다. 여기에서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의 상반된 견해가 나온다. 단견이란 없다고 부정하는 무(無)에 집착된 소견이요, 상견은 있다고 긍정 일변도의 유(有)에 집착하는 소견이다. 중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는 유를 말하기도 하고 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득이한 방편일 뿐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상(斷常) 이견(二見) 둘 다 편견(偏見)을 이루어 중도를 상실한다고 한다. 단견이나 상견에 빠지는 것을 불법 밖의 외도(外道)라 하였다. 불법(佛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외도란 말이다. 외도도 세 종류가 있어 불법(佛法) 밖의 외도가 있고, 불법에 기생하는 외도(附佛法外道)가 있고, 불법을 배우면서도 견해가 올바르지 못한 학불법외도(學佛法外道)가 있다 하였다.

불법의 근본 대의가 중도(中道)다. 사성제(四聖諦)나 연기법이 결국 중도의 대의를 천명한 교리이다. 유무(有無)의 견해나 일이(一異)의 견해를 다 같이 뛰어넘어 비유비무(非有非無), 비일비이(非一非異), 나아가 다시 이를 뛰어넘는 비비유비비무(非非有非非無)에 이른다. 이를 중현(重玄)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사구절백비(離四句絶百非)'라는 말과 비슷하다 사구(四句)는 일(一), 이(異), 유(有), 무(無)를 말하는데 이 사구가 미치지 못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일(一), 이(異)는 단원론(單元論)과 다원론(多元論)이다. 중도가 언어도단의 경지이고 깨달음이 바로 중도(中道)라는 말이다. 〈승만경〉에서 말하는 제일의제(第一義諦)의 멸(滅)이 곧 중도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에는 부파불교의 사변적 논리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중도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5수온(受陰)은 오온(五蘊)을 말하는 것으로 5가지 망상이 성립하여 중생이 과보받는 것을 총괄하여 수(受)라 하여 오수음(五受陰)이라 한 것이다. 때로는 오취온(五取蘊)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이 이 다섯 가지를 취하여 자신의 몸으로 삼기 때문이다.

〈능엄경〉에 부처님이 아난에게 일어준다. "아난아, 이 오수음은 5가지 망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음이 망상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망상이 번뇌이므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개공'이 된 경지가 〈승만경〉의 멸성제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색신염불 후 법신염불 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㊿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실상염불(實相念佛)

불자 여러분! '실상염불(實相念佛)'은 '제법의 진실한 자성'을 관하는 공관염불(空觀念佛) 수행입니다. 이는 색신과 법신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실천으로서 반야공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대지도론〉에서 "색신에 집착하지 않고 법신에도 집착하지 않아 능히 일체법을 알아서 영원히 고요함을 허공과 같이 해야 한다. 이 보살은 상세력을 얻어 색신불이나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법(空法)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실상염불은 색신불과 법신불에도 탐착하지 않아서 허공과 같은 영원한 적멸에 도달하는 것이 실상염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상염불, 반야 공사상 기초로
"모든 법, 허공 같은 줄 알아야"
종밀, 사종염불(四種念佛) 강조

또한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에서 "진불(眞佛)을 염한다는 것은 색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相)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며, 생(生)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고, 성(性)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다. 〈중략〉 부처님의 모든 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실히 염불하는 것이 무량하고 불가사의하다. 수행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아(我)와 아소(我所)가 없으며 〈중략〉 생기는 모습도 없다. 법성을 섭수하여 안색(眼色)이 허공의 도를 초월한 이와 같은 상(相)을 이름하여 진염불이라고 한다"고 실상염불이 곧 진염불(眞念佛)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용수보살은 〈조도염불삼매품 제25〉에서 "수행자는 먼저 색신불을 염하고 이어서 법신불을 염한다. 또한 신발의(新發意) 보살은 마땅히 32상 80종호로써 부처님을 염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 중세력(中勢力)을 얻고 난 후 마땅히 법신염불을 하라. 그리고 나면 마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 상세력(上勢力)을 얻는다. 그리고 난 후 마땅히 실상염불로써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수보살은 염불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먼저 염하기 쉬운 색신염불부터 수행하여 염불의 힘을 얻은 후에 법신염불을 하고, 새롭게 믿음을 일으킨(新發意) 보살은 32상 80종호의 부처님의 덕상을 염하여 염불의 힘을 얻은 후에 실상염불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수보살이 강조하는 것은 수행자가 염불수행을 할 때 염하기 쉬운 색신염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 염의 힘을 얻은 후에 법신염불을 해야만 궁극의 목적인 실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밀 스님의 사종염불(四種念佛)

불자 여러분! 화엄종의 제5조인 종밀 스님은 '일행삼매'나 '자성을 깨닫기 위한' 염불수행법으로써 4가지 종류의 염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밀 스님의 사종염불(四種念佛)은 부처님의 명호와 부처님의 형상, 그리고 지위에 의해 분류한 염불 수행법으로서 그 염불의 종류에 있어서는 칭명염불(稱名念佛), 관상염불(觀像念佛), 관상염불(觀想念佛), 실상염불(實相念佛)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㉗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 1

"뜨거운 돌을 던져버려라"

"수행승들이여, 뭇 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이 손에 뜨거운 돌을 들고 와서 "이 돌을 어떻게 하면 제가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뜨거운 돌을 던져버려라"라고 말할 것이다. 듣는 자가 손에 든 것이 뜨거운 줄 알고 바로 던져버리면 더 이상 서로 할 일이 없지만, 만약 들고 있는 사람이 손에 있는 돌이 뜨거운 줄 모르면 다시 되물을 것이다. "저는 이 돌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들지 못할 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은 뜨겁겠지만 어느 쪽은 뜨겁지 않아 들고 있을만하니 다른 방법을 말해주세요"라고 말이다. 이때부터 방법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뜨거운 돌을 던져버리는 일은 뜨겁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린아이도 당장 던지지만, 그 돌이 뜨겁지 않다고 말하게 되면 방편의 말들이 아주 많아진다.

그렇다면 왜 '뜨겁지 않다'라고 아는 것일까? 뭇 삶의 의식은 전도몽상되어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렁이나 도마뱀처럼 어느 부분을 분리하여 버릴 수 있다면, 고민 없이 잘라 버리면 되지만, 뭇 삶의 사대오온은 분리할 수 없는 몸이다. 그러니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찾아 헤매지만, 그러한 찾음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이지 근심과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몸, 느낌, 마음, 사실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것에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놓치는 것이 있는가 싶지만, 어떤 것도 알아야 하는 것 없고, 어떤 것도 놓치는 것이 없다. 슬픔과 비탄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생겨나는 오온의 망상이지만, 뭇 삶은 그 속에서 고통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온에 일어나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느낌의 진실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사유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차갑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겨울의 얼음과 여름의 얼음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하나는 정말로 차갑다는 느낌이 있고, 하나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똑같은 얼음이지만 느낌은 다르다. 이렇듯 느낌이라는 것이 몸의 상태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면, 느낌에 대해 옳다는 견해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느낌을 느낌으로만 알면, 따로 다른 마음을 내어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과거의 느낌에 사실이 없다면 느낌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고정된 관념이 없다면 뭇 삶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자아에 대한 강한 아상이 흩어져 어떤 한 방향이 옳고 어떤 한 방향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뭇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근심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실제처럼 느껴지는데, 반대로도 똑같이 고통과 근심이 있다면 비교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잘되는 사람이나 잘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과 근심이 발생한다. 개체의 조건에서 고통과 근심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비교 없이 그대로 보지 못함에서 고통과 근심이 발생하였으므로, 비교만 하지 않으면 고통과 근심이 소멸하는 것을 그대로 안다.

가지고 나온 오온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구하고 찾는다고 불필요하게 헤매었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가 되면
처음 부족함 없이 왔듯이 누구나 부족함 없이 갈 뿐이니
조건 지어진 물질, 느낌, 마음 어디에도
사실이 없는 줄 알고 잊지 않기를 바라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